



육군2군단과 강원대가 지난 10일 체결한 업무협약식에서 박후성(오른쪽 아홉째) 군단장과 정재연(왼쪽 아홉째) 총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제공=이문희 군무주무관

장병 교육 기회 확대해 국방·방산 전문가 양성 ‘합심’

육군2군단, 강원대와 업무협약 체결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교육, 컨설팅
학생·교직원에 병영체험 기회 제공
실무협의체 구성 지역과 상생 이바지

육군2군단이 국방 분야 실무 중심 교육과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단은 지난 10일 사령부에서 강원대학교와 ‘국방·방산 전문인력 양성 및 안보·지

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후성(중장) 군단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군 내 방산 전문인력 양성, 전역 장병 사회 복귀 지원 등 군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단은 협약에 따라 강원대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견학과 병영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축제나 문화·예술행사 시 군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강원도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는

장병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초교육과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운영,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단과 강원대는 향후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연 2회 정기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시설 공유, 전문인력 연계, 상호 자원교류 등으로 실질적인 ‘군·학’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상생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장은 “협약이 전역 장병의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상생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단과 손을 맞잡고 인재 양성,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군단장은 “군단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의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거침없이 IBS 다루며 상륙기습훈련…최정예 교관을 향해

해병대1사단 72대대, 교관화 교육
장병 70여명과 고무보트 10여척 투입
반복 훈련 통해 IBS 운용 전문성 길러

해병대1사단 상륙기습훈련 교관들이 해병대 특성과 훈련인 상륙기습훈련으로 교육 능력과 전투기술을 끌어올렸다.

해병대1사단은 지난 11일 “예하 72대대가 도구해안에서 진행한 상륙기습훈련 교관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부대가 지난 7일부터 전개한 상륙기습훈련 교관화 교육에는 장병 70여명과 소형고무보트(IBS) 10여척이 참가했다. 교육은 △해병대다운 전투기술과 체력 구비 △상륙기습훈련 교관자원 양성 △상륙기습작전 수행 절차 이해·숙달을 통한 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생존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2일 차에는 PT체조와 IBS 소개,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육상 도수 운반과 패들링을 반복 숙달하며 상륙기습작전 수행절차를 체화하고 기초체력을 단련했다. 3·4일 차에는 도구해안의 해상 환경을 극복하는 해상 패들링과 모터링, 보트 분해·조립 교수법을 실습하며 전술적 운용 능력을 배양했다.



해병대1사단 72대대가 진행한 상륙기습훈련 교관화 교육 중 참가 장병들이 IBS 분해·조립법을 배우고 있다.

부대 제공

장병들은 6·8명씩 조를 이뤄 140kg에 달하는 IBS를 다루며 단결심과 전우애를 함양했다. 특히 반복된 훈련을 통해 IBS 운용 전문성과 교관으로서의 교육 능력도 길렀다.

마지막 날은 그동안 갈고닦은 전술·전기를 점검하는 종합평가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교육을 수료한 장병들은 소속 부대로 복귀해 양질의 교육 훈련을 주도하며 전투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부대는 혹서기에 대비해 훈련장에 ‘쿨링

버스’를 운영하고 혹서기 대비물자를 비치하는 등 운영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또 훈련 전 안전성 평가와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하고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지범섭(중사) 교관은 “훈련을 통해 상륙기습작전에 필요한 전투기술을 습득하고 교관들의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작전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생으로 참가한 박지환 중사는 “상륙기습훈련 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 장병들의 상륙기습 작전수행능력 함양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사단은 상륙기습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과 탐색구조 집중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훈련을 진행하며 장병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